54괘 - 뢰택귀매 - 112122

전체 : 귀매의 길에서는 정하는 것은 흉하리라.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.

1효 : 처음에 양이 오니, 누이동생을 작은 부인으로 시집보내는 상이다. 절름발이라도 능히 밟아나갈 수 있으니 정하면 길하리라.

2효 : 양이 두번쨰에 또 오니, 애꾸눈이라도 능히 볼 수 있는 상이다. 이로운 것은 유인의 정함을 지니는 것이다.

3효 : 음이 세번쨰에 오니, 누이동생을 큰 부인으로 시집보내야 하는데, 도리어 작은 부인으로 시집보내게 되는 상이다.

4효 : 양이 네번쨰에 오니, 누이동생을 시집보냄에 기일을 지나치는 상이다. 시집보내기를 늦추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.

5효 : 음이 다섯 번쨰에 오니, 제을이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상이다. 그 정부인의 소매가 그 작은 부인의 소매만 같지 못해도 좋은 상이다. 달이 거의 보름에 차오니 길한 것이다.

6효 :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 오니, 여자가 광주리를 이어도 담긴 과실이 없고, 사내가 양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 상이다.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.

전체 : 양(효) 전체를 한꺼번에 보자면,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귀매의 도이니 정하면 흉하다.